

# “이미 민생지원금 마련했는데” 전남도, 20% 추가부담 ‘난색’

### 정부 부담금에 재정부담 더욱 가중 될 듯... “특단 대책마련 절실”

전남도가 이미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20%를 부담토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도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1280억 원을 투입한 ‘긴급민생지원금’으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민생지원금의 전체 예산 가운데 도 부담액은 512억으로 재해 구호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 기금에서 1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97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전남도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등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남은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부담금 20%를 지방비로 확보할 경우 전체 7000억 원 중 지

방비는 최대 14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와 시·군비를 분담할 경우 전남도는 50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민생지원금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20%를 부담할 경우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일선 기초 자치단체 역시 연쇄적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지방비를 배정할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의 부담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재정난 가중 등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성은 기자

##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 지역화폐로 60만원씩 지급 전국 최초...오늘 장흥군부터

전남도는 1일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중 지급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이 2일부터, 여수시가 6일부터 각각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지급기로 했던 것을 이번 달에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6일까지 신청한 19만5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1175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 광주시, 자연환경 활용

### 주민지원 생활복지 마련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규제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북구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 △남구 분적산 편백길 더푸른 누리길 조성 △광산구 산막재 주변 여가녹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이곳에는 국비 22억원을 포함한 2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환경문화(공모)사업으로 총 34개 사업에 221억원(국비 194억, 지방비 27억)을 들여 누리길·여가녹지·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문화(공모)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생태적 가치를 유지·개발하는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은 물론,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과 녹색성장 발전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며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등교, 장학금을 다시 기부로...릴레이 선행

‘총장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일부를 기탁한 소식이 일제히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총장장학회는 김백규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기금으로 관내 대학생 40명에게 개별증서와 1인당 2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난 25일 전달한 바 있다.

목포대학교 재학생인 하모(21, 학운동)양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에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인재를 위해 써달라며 자신이 받은 장학금 중 50만원을 학운동에 기탁했다.

학운동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서구청장, 급여기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일부를 기부했다.

1일 서대석 서구청장은 급여의 30%씩 4개월분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 동참운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서구청장의 급여 기부는 지난 3월 26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해진 서구청 공직자들이 모은 코로나19 극복 성금(1,064만원)에 이어져 더욱 훈훈함을 전했다.

##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4월말까지 통행 금지”

광주 남구는 4월 한 달간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공사 기간 이 구간 통행은 전면 금지된다.

남구는 제석산을 찾는 주민들이 구름다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름다리 양쪽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 산행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제석산 구름다리에는 보행자들의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1.2m 높이의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으나, 지난 2017년과 2018년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난간의 높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안전 난간은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되며, 2m 높이로 설치되고 있다.

##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시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여 주는 제도이다.

북구는 지난해 구매 목표액인 8억 3300만 원 대비 173%인 14억 4300만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목표액을 전년보다 6100만 원 증액한 8억 9400만 원으로 정하고 우선구매를 실시한다.

## 광산구, 청년 활력프로젝트 참여 단체 모집

광주 광산구가 ‘청년 활력프로젝트’ 공모사업 각 분야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보조사업자를 10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응원하고 자유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해온 광산구는, 이번 공모로 지금까지 사업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청년 활력과 건강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는 세 가지 주제인 스포츠 건강 △마음 건강 △공간지원 분야에서 청년활동을 주도하거나 뒷받침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 광주시 ‘3월의 공무원’에 오무술·김태순 주무관 선정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신속한 검사체계 구축 기여



광주시는 ‘3월의 공무원’으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오무술 주무관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김태순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검사체계의 구축과 진료체계의 확립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무술 주무관은 1994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2016년부터는 시 건강정책과에서 업무를 해왔다. 특히 보건분야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감염병 관리, 위생공중관리, 식품안전관리, 실험실 분석분야 등 다양한 업무를 적극 추진했다.

오 주무관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필요성을 감안, 1개 반 8명으로 운영하던 역학조사반을 민간 전문가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3개 반 14명으로 확대 구성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계별 감염병관리기관인 음압병상 운영 및 감염병 진단병원 지정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 비상사태 극복과 시민 불안감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순 주무관은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한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검사방법 및 검사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호남권 감염증 검사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특출한 역할을 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밤 빠르게 24시간 비상검사체계를 강화·확대 운영하고 신속한 검사방법 도입으로 6시간 이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위기대응 역량 체계 확립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다년의 검사 경험을 토대로 실험실 내부 음압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실험자의 안전과 병원체 외부 누출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노총인용기업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인 이해관계에서 세인은 승리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